

# 野 비주류 “친노 혁신위” 반발...출발부터 삐걱

### 진보노선 뚜렷...‘유능한 경제정당’ 모토와 배치 지적

### 당직 탕평 주목...사무총장 김동철·박기훈 의원 물망

세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인선과 관련, 진보 및 법친노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당직 개편을 앞둔 문재인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계파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출범한 혁신위가 인선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 대표가 당직 개편에서 ‘탕평’의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인선 후폭풍=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11일 혁신위가 운동권, 진보, 법친노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서 “가장 큰 혁신과제가 문 대표 사퇴와

친노계파 해체인데, 이 혁신위가 그런 결정을 할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계파와 무관하게 인선했다는 김상곤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초록은 동색”이라면서 “(혁신위 인선에) 당 지도부의 뜻이 많이 반영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호남 물갈이론”에 대해 “친노 운동권은 호남을 항상 구세력으로 몰아간다”면서 “당의 가장 썩고 쪼아 터진 부분은 친노 패권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가 정체성·투쟁성을 활동원칙으로 삼는 등 진보노선을 뚜렷이 한 것을 두고도 문 대표의 ‘유능한 경제정당’ 모토와도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좌

클릭으로는 다양화 된 중도층 흡수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어 ‘이기는 정당’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혁신위 구성에서 민생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용하지 못한 것은 패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직 탕평하나=혁신위 구성을 두고 ‘뒷말’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당 안팎의 시선은 문 대표의 당직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문 대표가 탕평인사로 비주류의 ‘친노 패권주의’ 비판을 잠재우느냐에 따라 내홍 국면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직 당직자 9명이 사표를 낸지 보름이 지나도록 인선을 미뤄 왔지만, 혁신위도 구성된 만큼 이번 주에는 문 대표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선은 문 대표의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가능자여서 대대적인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승조 사무총장의 경우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후임으로는 비주류인 박기훈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호남 몫으로 김동철 의원 카드도 나오고 있으며 최재성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지만 범친노 성향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전라라인도 재보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상징성을 고려,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당시부터 ‘친노 쟁기’ 논란을 빚었던 김경협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른 친노계 당직자들의 교체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탕평 인사를 하려해도 비노 중도 진영에서 문 대표와 소통이 이뤄지는 적절한 인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문 대표가 결단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대통령 방미 연기...국민 63.4% “잘했다”

### 리얼미터, 성인 500명 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연기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63.4%로 나타났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은 20.6%로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의 3배였다. ‘잘 모름’은 16.0%다.

이는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연기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조사에서도 또한 ‘순방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 ‘예정대로 순방해야 한다’는 의견(39.2%)보다 격차가 큰 결과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잘한 결정’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잘한 결정’이란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50대(잘한 결정 69.1% vs 잘못된 결정 25.0%), 40대(65.6% vs 24.6%), 30대(64.8% vs 13.0%), 60대 이상(62.7% vs 29.1%), 20대(53.7% vs 9.6%) 순으로 ‘잘한 결정’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어느 정당 지지층에서나 ‘잘한 결정’이란 의견이 60% 이상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잘한 결정 64.8% vs 잘못된 결정 17.8%)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새정치연합 지지층(64.6% vs 16.4%), 새누리당 지지층(62.4% vs 28.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모든 이념성향에서도 ‘잘한

차대통령 미국 순방 연기 결정 여론조사 결과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

‘잘한 결정’ 응답한 연령대별 비율



결정’이란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진보층(잘한 결정 74.0% vs 잘못된 결정 11.6%), 중도보수층(62.6% vs 8.3%), 중도층(60.6% vs 26.5%), 보수층(59.7% vs 29.7%) 순으로 ‘잘한 결정’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이념성향에서도 ‘잘한

결정’이란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진보층(잘한 결정 74.0% vs 잘못된 결정 11.6%), 중도보수층(62.6% vs 8.3%), 중도층(60.6% vs 26.5%), 보수층(59.7% vs 29.7%) 순으로 ‘잘한 결정’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이념성향에서도 ‘잘한 결정’이란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진보층(잘한 결정 74.0% vs 잘못된 결정 11.6%), 중도보수층(62.6% vs 8.3%), 중도층(60.6% vs 26.5%), 보수층(59.7% vs 29.7%) 순으로 ‘잘한 결정’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 강기정 “새정치 ‘정책행보’ 가속화”

### 가계부채·최저임금 인상 등 4대 민생고 해소 대책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광주 북구 갑)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대란 해소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이은 4대 민생고 해소 대책이다.

강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정책위원회 내부에 가계부채대책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장기간의 저금리구조 속에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의 수혜 대상이 서민 중산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차로 제시한 가계부채 대책은 고금리에 갚느라 서민계층

에 집중됐다. 강 의장은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를 현재 34.9%에서 25%까지 내리고, 현재 1금융권만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한편,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 영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은 현재 신용대출 시장에서 10%대 중금리 상품에 공백상태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 자라수 금리의 은행에서 밀려나면 20%대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대출기관을 육성해서 서민 신용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1차 대책에 이어 여력이 없어 밟기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대책을 이날 하순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장 등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가계부채부담 경감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혁 의원,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장, 김기식 의원, 박수현 의원. /연합뉴스

# 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 이송 일단 보류

### 靑 ‘거부권’ 우려 속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 주겠다’

국회는 1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일단 보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야당이 12일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해서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려 왔다”며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법안) 이송을 보류하기로 했

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특히 정의 의장은 야당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취지에서 오는 12일에도 국회법을 송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다음주 국무회의에서는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 영역인 시행령을 국회가 지나치

게 간섭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함에 따라 개정안 이송에 앞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의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요청’으로, ‘정부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를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수위를 낮췄다.

정의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자신이 낸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정의 의장의 중재 노력은 국회 기능을 살리는 데 귀중한 것이라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면서 “당내 논의를 더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야당도 ‘정의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애초 우리 당 의원들도 정의 의장의 중재안을 선의로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청와대가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JTB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 - 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론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텔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